

미야자키에서 울려 퍼진 한일 문화교류의 향연 ‘미야자키 한국 페스티벌2025’ 개최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해 다양한 한국 공연, 체험교실 등 한국문화 알리는 교류행사 개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박영혜, 이하 문화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한국문화원 미소재 지역에서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방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백제 마을 축제(백제의 고향 봄 축제)로 잘 알려진 일본 미야자키현과 공동으로 ‘미야자키 한국 페스티벌 2025’를 10월 11일(토)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종합문화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 공연과 문화 강좌, 문화·관광 홍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공연은 ▲평소 한국 대중가요와 민요를 자주 연습하고 있는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 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리랑 합창을 시작으로, ▲K-POP과 일본 애니메이션 OST 등 일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곡들을 선보이는 아카펠라 공연, ▲화려한 격파와 품새를 음악에 맞춰 선보이는 태권도 퍼포먼스, ▲한국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후루야 마사유키와 K-POP 아이돌 그룹 펜타곤의 일본인 멤버 유토가 전하는 한류 토크쇼, ▲미야자키현 내에서 활약 중인 청소년 한류 동아리의 K-POP 커버 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험 강좌와 문화·관광 홍보 프로그램에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글 캘리그래피 교실, ▲한글 동화 테라피(고추장을 주제로 한 작품)&고추장 만들기 체험교실을 비롯하여,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한복

체험, ▲한지와 자개를 활용한 전통공예 체험교실 등의 1일 강좌와 ▲한국관광 홍보 및 APEC2025 경주 홍보, 한일 문화교류 전시 등 지방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국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영혜 문화원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여전히 적은 편이다. 이번 미야자키 행사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지역의 양국 미래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홍보담당자	팀장 조은경 (+81-3-3357-5970)
		행사담당자	팀장 채경신 (+81-3-3357-5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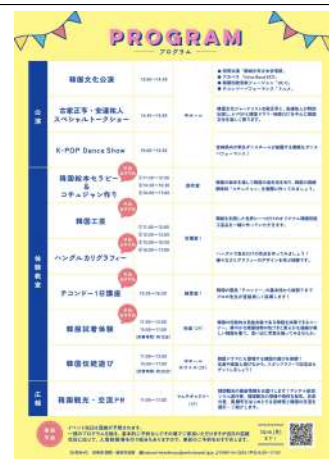
□ 행사개요

- (행 사 명)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미야자키 한국 페스티벌 2025’
- (일 시) '25. 10. 11.(토) 11:00~17:00
- (장 소) 미야코노조시 종합문화홀(미야자키현)
- (주 최) 주일한국문화원, 미야자키현
- (후 원) 미야코노조시
- (주요내용)
 - 무대공연 : 아리랑 합창, 태권도 퍼포먼스, 퓨전 국악, 태권도 퍼포먼스, 한류 토크쇼, K-POP댄스
 - 문화강좌 및 문화·관광홍보 : 한글 캘리그래피 강좌, 한국 동화 테라피 &고추장 만들기 체험, 한지 공예, 한복 체험, 태권도 1일 강좌, 한국 관광 및 APEC2025 경주 홍보, 남해군 관광 홍보, 한일교류 전시, 미야자키현 백제마을 홍보, 인천-미야자키 직항 홍보 등

□ 전시 홍보물



행사 전단지 앞면



행사 전단지 뒷면